

제조업 불모지에서 일자리 창출 성공신화를 보다! - 대구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는 대구 동남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명의 자치구로 전체면적의 76.6%에 달하는 녹지지역과 수성유원지, 대구대공원, 범어공원 등 여가공간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대구 제일의 주거지역이다. 또한 법원과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병·의원, 금융기관, 방송국 등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이자 유수의 명문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 최고의 교육도시다. 또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스타디움이 소재하고 주변지역에 시립미술관, 대구박물관, 수성아트피아, 대구대공원 등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문화, 레포츠, 관광기반을 갖춘 명품도시인 수성구는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성장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1460

대구는 고용률이 전국 평균인 58.5%보다 낮은 57.7%, 실업률은 전국 평균 3.0%보다 높은 3.3%에 육박하는 저고용 고실업의 도시로, 최근 10년간 12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타 지역 진출과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수성구는 공장이 없고 제조업체 수가 적은 지역이라 일자리 창출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였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부임하면서 2014년까지 지속가 능하면서 수성구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1460 프로젝트’를 민선5기 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유치 등 기업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지역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기업형 일자리 확대,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수성의료지구 내 연구소 및 기업체 유치, 국책·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산업 육성과 일자리 연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실천체계 확립 및 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7대 추진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수성구는 우선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신설과 수성일자리센터 설치, 창업 전세자금 기금 확보, 일자리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후 고용의 씨앗인 창업지원 강화 정책으로 개인이 사장이면 서 직원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인 범어센터를 운영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개 업체를



1

선정·지원한 결과 39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2개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예비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3개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위한 취·창업 지원시설인 대구 경북 최초 시니어 비즈니스플라자를 개소하면서 신규 고용 9명, 매출 77백만원 실적을 올렸다. 그 밖에 예비창업기술 선정 2개소, 벤처기업 인증 3개소, 대구 경북 우수 아이템 경진대회를 석권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전국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휴면기금을 통합하여 일자리창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데 연 이자율 2%로 기업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친화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은 10배(2개소→20개소)가 신장하여 대구 최고의 신장률을 보였고 고용은 9배(67명→608명), 매출은 9배(6억원→56억원)가 성장하였으며, 마을기업도 6배(1개소→6개소)가 늘어나 대구지역 중 최다를 기록했다. 고용은 25배(3명→76명), 매출은 60배(1백만원→60백만원)가 신장되었고 새로 조성된 인근의 패밀리파크와 연계하여 사

계절 체험형 마을기업으로 육성한 팔현마을이 2011 행안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성구는 의료관광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병원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3회에 걸쳐 164명이 교육을 거쳐 30.5%에 해당되는 5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JCI(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정을 통한 의료관광 고용창출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는 세계 최초 사례로 오히려 신경외과와 안전안과 등 2개소가 JCI의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수성구는 201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분야'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2년에는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말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2 도시대상 평가에서 경제활력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수성구는 기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지원 강화와 고용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어, '일자리 1460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을 것이다. 



대구 수성구청 전략기획실 지방행정주사보
gykim93@korea.kr